

## 최인호의 『유림』에 나타난 유가사상 연구

### A Study of Confucian Ideology in Choi In-ho's Novel, The Confucians

음 영 철  
삼육대학교

Eum yeong-cheol  
Sahmyook University

####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최인호의 『유림』에 나타난 유가사상이 실존인물을 중심으로 전개되는데 주목하여 유가사상의 본질이 무엇인지 밝히고, 이를 통해 탈근대의 단초를 제시함에 있다. 연구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예'가 동아시아인을 넘어 세계인의 사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이황과 이이, 이황과 기대승의 담론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유가사상은 상생과 공존을 제시한 레비나스의 '타자성의 윤리'에 맞닿아 있는 것이다.

## I. 서론

본 연구는 크게 세 가지 방향① 최인호의 『유림』에 나타난 유가사상은 무엇인가. ② 최인호의 소설 속 인물들이 보여준 행적은 탈근대의 단초가 될 수 있는가. ③ 최인호의 유가사상을 드러내는 데 픽션소설은 어떤 기능을 하였는가)에서 최인호의 장편소설 『유림』(2005)을 연구한 것이다.

최인호는 『유림』에서 유가사상을 대표하는 실존 인물들을 중심으로 동아시아 사상을 서사화했다. 이 연구의 목적은 『유림』에 등장하는 실존 인물인 공자, 맹자, 조광조, 이황, 이이를 중심으로 전개된 조선조의 유가사상이 탈근대의 단초를 모색하는 데 도움이 됨을 밝히는 것이다. 아울러 본 연구는 최인호가 보여준 픽션소설의 미학도 검증할 것이다.

본 연구의 주제와 관련하여 주목하고자 하는 선행연구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① 개인의식을 다룬 연구, ② 범종교적 소재를 다룬 연구, ③ 역사소설을 다룬 연구가 그것이다.

첫째, 개인의식을 다룬 최근의 연구로는 김지윤의 연구를 들 수 있다.[1] 그에 따르면 김주연에서 시작된 최인호의 개인의 의미 연구는 김치수, 서종택에서는 긍정적인 평가로 이어지고 오생근, 김현, 이동하에게서는 비판적·부정적인 평가로 귀결되었다. 이외에도 최인호의 단편소설을 당대 이데올로기와 연관시켜 논의한 장세진, 최인호의 소설을 현실과 불화하는 개인의 대응 양상 관점에서 논한 김진형, 거대담론과 권력이 맹위를 떨친 사회에서의 개인의 역할 탐색을 논한 김지윤의 연구를 들 수 있다. 이상의 선행연구들을 종합하면, 개인의식을 '소외'라는 관점에서 시작하여 문학과 사회를 바라보는 적극적인 시각에 도달함을 알 수 있다.

둘째, 본 연구의 대상인 『유림』과 관련하여 최인호의 소설에 나타난 범종교적 소재를 다룬 연구로는 황경훈을 들 수 있다. 황경훈의 논의는 최인호 소설의 종교성을 탐구한 것으로, 『유림』과 『길 없는 길』에서 보인 최인호의 열린 신앙과 종교다원성 밝힌 것이다. 그의 연구로 알 수 있는 사실은 90년대 이후 최인호의 문학사상이 범종교적 관점에 경도되었다는 것이다.

셋째, 90년대 이후 발표된 최인호의 장편소설에는 실존 인물을 허구화하여 표현한 이른바 픽션소설이 등장한다. 본 연구의 주제인 픽션소설과 관련하여 참고할 만한 연구자로는 권덕영, 홍성화를 들 수 있다. 권덕영은 최인호의 『장보고』와 『해신』을 분석하면서 역사와 소설 속의 장보고를 논하였다[2]. 홍성화의 논의는 최인호의 『잃어버린 왕국』을 중심으로 고대 백제와 일본의 관계를 동아시아 관점에서 기술할 때 참고할 만하다[3].

## II. 본론

### 1. 최인호의 『유림』에 나타난 유가사상

최인호는 90년대 이후 도가, 유가, 불교 사상을 중점적으로 다룸으로써 평단이 부여했던 '도시적 감수성', '허무주의적 세계인식' 논의를 불식시킬 필요가 있었다. 다시 말하자면, 최인호가 70년대 사회에 만연했던 '위악으로 가득 찬 시대'를 소설로 응전하면서 보여주었던 인물들의 어정쩡한 태도, 즉 절대적 거부도 절대적 순응도 아닌 태도에서 탈피할 필요성이 있었다. 이는 그가 90년대 들어서면서 달라진 시대상황을 소설로 담아내야 했기 때문이다. 그 결과로 나타난 것이 동아시아 사상과 역사로의 영토 개척이다. 90년대 이후로 최인호는 소설 속에 성찰하는 주체를 내세워 인간 삶에 있어서 미래 희망적인 메시

지를 전하고자 한다. 한 마디로 90년대 이후 최인호는 『유림』[4]과 같은 장편소설에서 동아시아 사상사를 무대로 한 유목민적 상상력을 유감없이 드러낸 것이다.

최인호의 『유림』에는 동아시아 사상의 본류인 유가사상이 중심축이 되어 나타난다. 2천5백 년 전부터 동아시아의 중심 사상이었던 유가사상은 공자로부터 시작되는데 최인호는 유가사상의 뿌리를 찾아 시간여행을 떠난 것이다. 최인호는 『유림』의 작가 후기에서 “2천5백 년 전의 공자와 맹자를 만나고 실패한 개혁자 조광조를 접신하고, 퇴계를 초혼하는 『유림』을 쓰는 3년 동안 나는 저주받은 방관자로서의 작가적 운명을 절감”하였다고 하였다.

『유림』에는 유가의 본산인 공자와 맹자를 거쳐 공자의 정명주의를 바탕으로 왕도국가를 세우려다 실패한 조광조로부터 공자의 학문을 집대성한 이황에 이르기까지 유가들의 열전이 팩션에 기초하여 전개된다. 최인호가 동아시아 사상의 본류이기도 한 유가사상에 집착한 것은 동아시아인의 핏속을 흐르는 원형질을 찾고자 했기 때문이다. 이는 1980년대 이후 세계적으로 신자유주의의 광기가 동아시아에 전래되면서 유교자본주의가 가지고 있던 ‘협동’, ‘단결’, ‘조화로운 인간관계’와 같은 공동체적 요소가 무너지기 시작한 시기와 상관성을 갖는다[5].

본 연구는 『유림』에 나타난 실존 인물을 중심으로 전개된 유가들의 담론이 동아시아를 넘어 세계인의 정신사상이 될 수 있음을 밝힌 것이다. 이는 최인호가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유림』의 유가사상이 탈근대의 단초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최인호의 『유림』에 나타난 유가사상은 예(禮)에 기초한 겸손을 통해 연대의 가능성을 제시하는 바, 이는 서구의 레비나스가 주창한 타자성의 윤리와 맞닿아 있다. 이러한 단초들을 팩션의 형식으로 재해석하여 보여준 최인호의 『유림』은 동아시아의 사상 중에 하나인 유가사상이 아시아를 넘어 세계의 사상으로 커갈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동아시아문화공동체에도 큰 자산이 되리라 본다.

## 2. 최인호의 『유림』에 나타난 팩션 기법

본 연구는 최인호의 『유림』에 나타난 실존 인물들의 유가사상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공자와 맹자의 왕도정치가 조선의 성리학자들인 조광조, 이익, 이황에 이르러 어떻게 계승되고 발전했는지를 고찰한 것이다. 최인호의 『유림』에는 중국의 주자학이 조광조를 통해서 정치적 계승되고, 이황을 통해서 학문적으로 종합되는 과정이 팩션의 형식으로 잘 드러난다.

최인호는 그의 소설에서 실존 인물에 허구적인 요소가 가미된 팩션 스타일의 서사양식을 취하여 인물 열전을 펼쳐고 있다. 『유림』에 나오는 조광조(趙光祖, 1482~1519)는 조선 중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한양(漢陽)이고 자는 효직(孝直)이었으며 호는 정암(靜菴)이었다. 한성에서 출생하였다. 이황(李滉, 1501~1570)은 조선 중기의 문신이자 학자였으며 본관은 진보(眞寶)이고 자는 경호

(景浩)였다. 호는 퇴계(退溪)·퇴도(退陶)·도수(陶叟)이다. 팩션은 팩트(fact)와 픽션(fiction)을 합성한 신조어로 역사적 사실이나 실존 인물의 이야기에 작가의 상상력을 덧붙여 새로운 사실을 재창조하는 장르를 일컫는 말이다.[6] 최인호는 실존 인물과 허구적 인물 간의 비교 연구를 통해 기존의 영웅주의나 민족주의에 포섭되지 않고 동아시아 사상이라는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 Ⅲ. 결론

본 연구는 최인호의 『유림』에 나타난 유가사상을 연구하는 것이다. 요약하자면, 최인호의 유가사상은 팩션기법을 통해 실존인물을 허구화하여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우리는 ‘예’에 기초한 협동과 단결, 조화로운 인간관계를 알 수 있다. 서구의 레비나스가 주창한 레비나스의 ‘타자성의 윤리’가 동아시아 사상 중에 하나인 유가사상에 기초함을 알 수 있다.

## ■ 참고 문헌 ■

- [1] 김지윤, 최인호 문학에 나타난 개인의 의미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6.
- [2] 권덕영, 역사와 역사소설 그리고 사극: 장보고와 ‘해신’을 중심으로, 『역사와 현실』 60, 한국역사연구회, 2006.
- [3] 홍성화, 歷史小說, 歷史드라마에 나타난 古代思想 고찰: 최인호, 이문열 소설을 중심으로, 『스토리&이미지텔링』, 건국대학교 스토리엔이미지텔링연구소, 2013.
- [4] 최인호, 유림, 열림원, 2005.
- [5] 김교빈, 한국의 동아시아공동체론: 동양철학의 관점으로 본 동아시아공동체론, 『오늘의 동양사상』, 예문동양사상연구원, 2006.
- [6] 이숙, 팩션소설 연구 서설, 『現代文學理論研究』 제40집, 현대문학이론학회, 2010.